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

현대건설 동탄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 협착 사고 件

안전기획팀
'22.07.21. 10:30

□ **시공사** : 현대건설(주) (2021년 시공능력평가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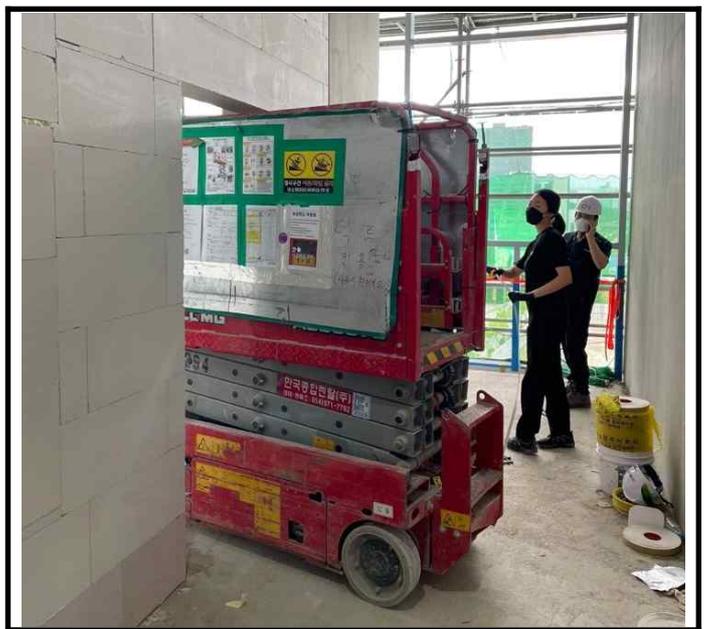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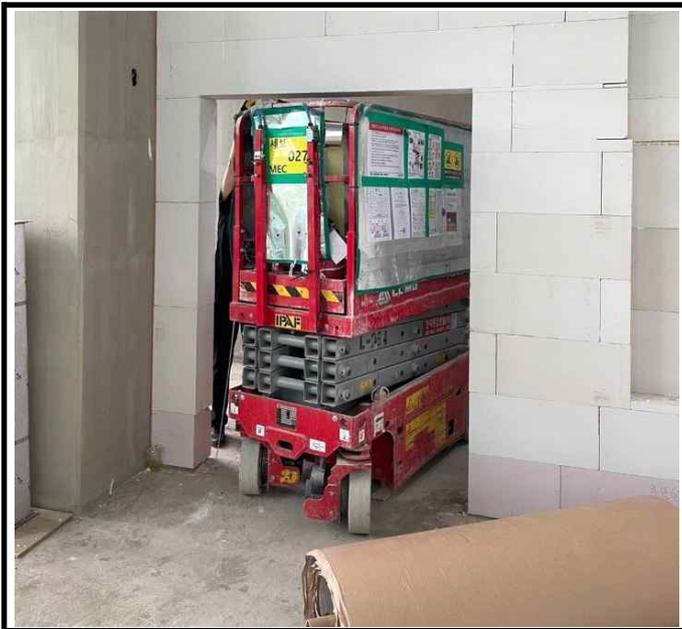
□ **현장개요**

- 현 장 명 : 현대 실리콘엘리 동탄 지식산업센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 공사규모 : 지하 4층 지상 20층(건축면적 20,644㎡, 6,244평)
- 공사금액 : 3,000억원

□ **재해내용**

'22.06.28(화) 09시 45분경 설비공사를 위해 고소작업대 이동 중 탑승자(재해자)가 출입구 천장과 고소작업대 난간대 사이 목(두부)이 협착 되어 119 출동 및 심폐소생 실시 후 구급차로 동탄한림대 병원 이송 (병원 입원 치료 중 07/20 17:00경 사망)

□ **현장사진**



□ **피해상황**

- ▷ 인적피해 : 1명 사망
-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 낮은 출입구로 고소작업대를 이동하기 위해 협착방지봉을 해체하고 무리하게 운행(운전 미숙)

□ **당사 현장 조치사항**

- ▷ 재해사례 전파
- ▷ 고소작업대 운행시 임의로 안전장치를 해체하고 운행하지 않도록 하며 운전원은 현장별 자체적인 자격인증을 받은 인원 배치
- ▷ 재해사례를 위험성평가지 반영하여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 실시

■ 언론 보도자료(한국경제 외)

현대건설 동탄 현장서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중“

입력 2022.07.21 09:24 수정 2022.07.21 09:27

가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번째



현대건설의 동탄 소재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 중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과 동시에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대건설이 화성시에 시공 중인 '실리콘밸리 동탄'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씨가 사고를 당했다.

덕트 설치 작업을 위해 고소 작업대를 타고 낮은 출입구를 통과하던 중 출입구 천장과 고소 작업대 난간대 사이에 얼굴이 낀 것이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결국 20일 오후 4시 45분경 사망했다.

■ 언론 보도자료(한국경제 외)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소속 감독관 등을 현지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A씨의 사망과 함께 사건은 중대재해법 위반 건으로 전환이 된 상태며, 20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 고소 작업대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 명령도 내려졌다.

해당 공사현장은 3000억 규모로 중대재해법이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현대건설 전국 주요 시공 현장 36개소를 감독했고, 254건 위반 사항을 적발해 67건을 사법 조치 하고 18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3억7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1분기(1월 12일, 2월 16일)에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월 발생 사고는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13개 법인 경영책임자 14명을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통보하고 소집한 목록에 윤영준 대표이사가 포함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사고가 누차 발생하면서 현대건설도 법적·도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